

광주세계수영대회 179억 흑자 냈다

‘저비용 고효율’ 국제스포츠대회 성공 모델
전세계 10억 9천만명 시청...北 불참 불구 관심 ↑
이용섭 조직위원장 “시민·자원봉사자에 감사”



올 여름 지구촌을 뜨겁게 달군 광주세계수영대회를 전 세계 10억 9000만명이 시청했고, 179억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2019광주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대회를 주관한 국제수영연맹(FINA)이 최근 광주세계수영대회 운영 결과 보고서를 보냈다.

최대 규모의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10개의 세계 신기록 수립과 10억명 이상의 시청자 수는 경기운영과 흥행 측면에서도 성공한 대회였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산한 결과 179억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후원, 입장권 판매수익, 마스터즈대회 참가자 등록비 등 자체수입을 기대 이상으로 확보했기 때문이다.

대회 시설 원상복구, 사업비 정산, 백서 발간, 대회 물자 처분 등 후속 업무를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지금까지의 국제대회 관례에 비추어 가장 빠른 대회 후속 업무 마무리다.

FINA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12~28일 개최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191개국에서 7456명이 참가했다. 8월5~18일 개최한 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에는 84개국에서 5365명이 참가하는 등 총 1만2821명이 참가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북한의 불참, 국내 스타선수 부족 등 약조건 속에서도 김수지 선수의 다이빙 동메달 획득과 여자 수구팀의 첫 골 등 우리나라 선수들의 투혼이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대회 막판에는 구름 관중이 경기장을 찾아 최종 관람객 수는 33만 명으로 집계됐다.

수입은 보조금 825억원(국비 299억원, 시비 526억원), 기타 수입 619억원 등 총 1444억원으로 예산액 1342억원보다 102억원을 초과했고, 지출은 1265억원으로 예산액 1342억원보다 77억원을 절감했다.

이용섭 조직위원장(광주시장)은 “국내 스타선수 부재, 북한 불참, 총사업비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을 안고 출발한 수영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던 것은 대회 관계자, 자원봉사자, 언론 그리고 시민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성원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세계신기록 10개와 대회신기록 17개가 수립됐다.

가장 큰 성과는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성공 모델을 보여줬다는 점이다. 광주수영대회 총사업비가 평창 동계올림픽(4조2853억원) 대비 5%, 인천아시안게임(2조376억원) 대비 11%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경기장 신축을 최소화하고 대회물자와 물품은 임대해 활용했다.

집행잔액 179억원은 2020년 조직위원회 청산 시까지 운영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대회 레거시 사업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조직위는 대회가 마무리된 지난 8월 이후 후속업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어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회 후속업무를 치질 없이 마무리하고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 등 대회 유산사업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영대회는 145개 국가에서 211개 채널을 통해 방송됐고 전 세계 10억9000만 명이 대회를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외 SNS를 통한 노출 건수는 7억 회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수영대회 총사업비가 평창 동계올림픽(4조2853억원) 대비 5%, 인천아시안게임(2조376억원) 대비 11%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경기장 신축을 최소화하고 대회물자와 물품은 임대해 활용했다.

2020년 7월 법인 해산을 목표로

서은홍 기자

조직위는 수영의 번영이라 할 수 있는 아시아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와 선수가 참가한 역대

여수시 ‘섬 관광 전성시대’... ‘일레븐 브릿지’ 개통 눈앞

여수~고흥 11개 교량 연결...섬박람회 개최 기반

365개의 아름다운 섬을 간직한 여수시가 ‘섬 관광 전성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교량 건설사업도 활기를 띠며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기반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22일 여수시에 따르면 화양면에서 적금도를 잇는 4개의 해상교량이 2020년 2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남면~화정면을 잇는 4개 해상

화양에서 적금도를 잇는 교량은 동서 방향으로 (가칭) 화양-조발 간 대교(사장교, 854m), 동평대교(사장교, 990m), 남도대교

(박스거터교, 640m), 적금대교(중로아치교, 470m)가 있다.

이들 교량이 개통되면 차를 타고 바다와 연안, 섬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벨트가 구축된다.

이 길을 이용하면 여수와 고흥을 1시간이내 왕래할 수 있고, 물류비용 절감과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숙원 사업이었던 남면 화태~화정면 백야를 잇는 교량 건설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업은 화태도~월호도~개도~제도~백야도 구간에 해상교량 4개를 세워 남면과 화정면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들 8개 교량에 현재 이용 중인 3개 교량(화태대교, 백야대교, 팔영대교)을 더하면 총 11개 다리(일레븐 브릿지)가 여수시 돌산읍부터 고흥군 영남면까지 바다 위를 수놓는다.

여수=김도현 기자



22일 오전 5시45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 조사와 인명 수색 등을 펼치고 있다.

광주 모텔 투숙객 방화로 33명 사상

광주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 1명이 숨지는 등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관련기사 4면>

타피 샐비가 작동돼 비상벨이 울리고 있었으나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30대 방화 혐의자를 긴급체포, 정확한 범행과정과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직후 방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이던 중 모텔 3층 객실에 묵었던 김모씨(39)가 불을 지른 것을 확인,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22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45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에서 불이 나 오전 6시7분쯤 진화됐다.

김씨는 방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베게에 불을 붙인 뒤 화장지를 올려놓고 이불로 덮어놓고 방을 나갔다가 두고 온 집을 가져가기 위해 다시 돌아와 객실 불로 연기흡입과 호흡곤란,

소방당국은 217명의 인력과 48대의 장비를 동원해 진화작업과 함께 구조작업을 벌였다.

김씨는 방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베게에 불을 붙인 뒤 화장지를 올려놓고 이불로 덮어놓고 방을 나갔다가 두고 온 집을 가져가기 위해 다시 돌아와 객실 문을 열자 불이 크게 번졌다고

블로 연기흡입과 호흡곤란, 사망자 늘어날 수도...대피 못해 4층서 뛰어내리기도

문을 열자 불이 크게 번졌다고

‘신병 비판’ 주장 30대 용의자 체포...정확한 동기 조사

화상 등을 입은 투숙객 등 33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신병을 비판해왔다는 김씨가 불을 붙인 뒤 그대로 달아나려 했다는 점을 토대로 ‘물지마 방화’ 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1명이 숨졌고 10명이 중상을 입었다. 증상이 많아 사망자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병원에서 검사 등을 마치는대로 화재 원인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부상자 중에는 복도 등으로 대피를 못해 4층에서 뛰어내린 투숙객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서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검사를 마친 뒤 화재원인 등에 대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이 모텔에 출동했을 당시에는 불과 연기가 3층 객실에서 분출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당국이 모텔에 출동했을 당시에는 불과 연기가 3층 객실에서 분출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모텔에는 연기가 3층에서 5층까지 가득 찬 상태였고 자동화재

에서 검사를 받으면서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검사를 마친 뒤 화재원인 등에 대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뉴스1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게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